



2020 여행 트렌드 캠핑의 모든 것

글. 김진서 TBS 라디오기술팀 기술감독

요즘 캠핑이 붐이다. 각종 TV 예능에서는 작년부터 스타들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들에게 열광하는 팬들은 스타들을 따라서 캠핑을 시작하기도 한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고 여행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올해 여행 트렌드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관광지로의 여행보다는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이 주목을 받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탁 트인 공간에서의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캠핑하면 생각나는 핫한 캠핑 스팟, 실용적이고 예쁜 캠핑용품 그리고 그 외에도 캠퍼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는 캠핑 A-Z 포인트들이 있다. 올해 트렌드가 되어버린 캠핑을 제대로 즐길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캠핑의 모든 것 1. 캠핑의 종류

우선, 캠핑의 종류는 흔히 4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각각의 캠핑 종류와 간략한 설명 그리고 준비 사항을 살펴보자.

오토캠핑

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캠핑장 또는 야영장 등에서 하는 캠핑을 말한다. 텐트를 포함해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캠핑 준비 완료! 오토캠핑은 비교적 도심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쉬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동차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 짐의 무게나 크기에 제약이 없이 다닐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가져가고 싶은 모든 짐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거실만큼 커다란 텐트, 우드로 제작된 감성적인 테이블이나 의자나 조리대까지 말이다. 어쩌면 집보다 더 멋지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꾸며서 놀 수 있다는 점이 오토캠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캠핑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오토캠핑이다. 많은 사람이 캠핑이 가진 다양한 매력 때문에 다양한 캠핑용품과 이고 지고 다니는 거지만, 캠핑을 설계하는 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캠퍼들도 많다. 최근 캠퍼들 사이에서 생긴 신조어 ‘감성캠핑’이 이슈다. 미니멀하지만 멋들어진 분위기를 표현해내는 것이 감성캠핑의 포인트인데, 기존의 오토캠핑에서 감성이 더해진 소품과 캠핑용품 등을 이용해 좀 더 분위기가 좋은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기에도 좋은 감성캠핑은 2~30대의 젊은 층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백패킹

각종 무거운 캠핑 장비를 최소한으로 챙겨서 배낭을 들쳐 메고, 떠나는 여행이라 보면 된다. 배낭만 있다면 자유로이 원하는 곳으로, 발길이 닿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게 백패킹의 큰 매력이 아닐까. 자연 깊숙이 나만의 스팟을 찾아 조용히 머물다 올 수 있는 캠핑인 백패킹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단체보다는 개인활동을 선호하고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이들에게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적합한데, 혼자만의 여행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과 다양한 경험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백패킹은 홀로 떠나는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배낭 하나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을 넣고 돌아다닐 수 있어 무거운 수하물을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긴 거리를 걸을 때나 짐을 쌀 때도 편리하다는 메리트가 있다. 반면, 아이와 함께하는 캠핑이나 인원수가 많은 가족 여행 시에는 백패킹이 제약이 많을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차박캠핑

차에서 숙박하며 캠핑하러 다니는 것을 차박캠핑이라고 한다. 텐트 등의 장비가 없이 캠핑을 시작하기 좋다. 날씨와 상관없이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캠핑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캠퍼들은 직접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렌트하여 차박의 묘미를 즐기기도 한다.

8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캠핑카 등록 대수가 2만 5,000여 대로 2011년도 대비 19배나 증

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방법으로 떠오른 차박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이다. 내키는 대로 여행을 다니며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일반 캠핑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기도 훨씬 수월한 편이다. 다만 차량에 따라서 잠자리가 어느 정도는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기는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다른 단점을 굳이 꼽자면, 차박을 하다 보면, 향후 텐트를 설치하고 사이트를 구성하는 등의 캠핑 행위들이 많이 귀찮아 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자!

글램핑

캠핑 도구와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환경에서 즐기는 캠핑을 의미하는 글램핑은 영어로 화려하다는 뜻의 ‘Glamorous’와 ‘Camp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글램핑은 단어의 뜻하는 바 그대로, 빈손, 맨몸으로 가서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캠핑 체험과 같다고 보면 된다. 요즘 같은 시기에, 대자연을 느끼고 즐기고 싶지만 야외 취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전문 캠퍼가 아니기에 장비를 갖추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것이다. 차고로 캠핑의 묘미란 자연에서 먹고 자고 놀며 힐링하는 점인데, 자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글램핑은 알다시피 럭셔리한 캠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캠핑의 모든 것 2. 캠핑 필수 아이템

지금까지 캠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캠퍼들은 어떤 캠핑용품들 즐겨 찾을까? 캠핑 아이템은 아무래도 위에서 설명한 캠핑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다양하다. 지금부터는 캠퍼들의 사랑을 받는 캠핑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하면 좋은 체크 사항이 있다. 먼저 글램핑이나 주변 캠퍼를 따라서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한다. 장비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고, 캠핑이 자신과 잘 맞는 방식의 여행인지에 대한 체크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캠핑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차량 내부 부피를 고려하여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캠핑용품을 싣고 나르는데 자동차 사이즈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캠핑 용품을 준비할 때는 자동차 사이즈를 고려하는게 중요하다. 자동차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캠핑용품을 얼마든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래 쓸 장비인지, 소모품인지도 체크를 하고 장비 세팅에 대한 강약 조절도 필수이다.

기본적인 캠핑용품부터 요즘 유행하는 감성 캠핑을 완성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까지, 캠핑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해보자.

텐트

초보 캠퍼라면 텐트에 가장 먼저 예산을 쓸 것을 권장한다. 캠핑용품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텐트는 안전을 책임지는 이동식 가옥이기 때문에 공간적 효율성과 내수압 등 기능이 좋은 제품일수록 캠핑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텐트는 2룸 텐트이다. 2룸 텐트는 잠자는 곳인 이너텐트와 거실 역할을 하는 전실로 나누어진 텐트이다. 가족 캠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은 아이템이 되어줄 이너와 전실을 모두 한 번에 사용 가능한 2룸 텐트도 추천한다.

동형	내부가 둥근 돔 모양. 가장 대중적인 텐트 · 설치가 간단한 편 · 거실 공간이 없어 별도 타프 설치 필요 · 혼캠핑, 커플 캠핑에 추천
리빙 셀	취침/생활 공간이 나누어진 거실형 텐트 · 설치시간이 오래 걸림 · 거실 공간으로 프라이빗한 사용이 가능 · 가족 단위 캠핑에 추천
터널형	U자 형태 연결 방식 · 난방 효과가 높고, 낮은 천장으로 개방감은 적음 · 리빙셀과 유사해 보이지만 설치가 더 쉬움
TP	설치가 간편한 원뿔 형태의 인디언 텐트 · 감성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의 로망 · 난방 효율은 좋지만 공간 효율성이 떨어짐

텐트 모양으로 비교하기



텐트는 캠핑 초보자가 설치하기에는 생각보다 꽤 어렵다. 캠핑 가기 전 반드시 텐트 설치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설치와 철거가 편리한 원터치 텐트를 강력 추천한다.

타프

타프는 따사로운 햇볕을 가려주고, 자외선 차단, 방수 등의 기능이 있어 안전한 캠핑을 즐기게 해주는 아이템이다. 텐트와 별도로 설치해 그늘을 만들어줌으로써 신발을 벗고 텐트에 들어가서 좌식으로만 즐기던 캠핑을 입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다. 텐트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면적이 넓어서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침낭 & 매트

캠핑 현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책임지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침낭과 매트! 캠핑장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데크 위로 불편할 수 있어 침낭과 매트는 매우 중요하다. 야외에서는 해가 저물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사이 감기에 걸리기에 십상이다. 체온을 지켜줄 폭신한 침낭 하나면 텐트 안에서 비교적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침낭은 휴대성이나 충전재, 보온성, 방수성 등 기능성을 갖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니 주로 캠핑을 즐기는 계절이나 지역을 고려해 구비하는 것도 좋다.

캠핑 침낭 선택 가이드

- 침낭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에는 여름용 초경량 침낭을 준비하자.
- 형태에 따라 다른 침낭! 오토캠핑에 적합한 직사각형 침낭과 백패킹에 적합한 애벌레 머미형 침낭 등 다양한 형태의 침낭이 있다.
- 다운 혹은 인공 소재. 보온과 수납력이 좋은 다운 소재와 반면에 가격과 관리 편의성이 좋은 인공 소재가 있으니 둘의 차이를 잘 살피고 취향껏 구매하자.

의자 & 테이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꿀맛처럼 느껴지는 캠핑 감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알맞은 캠핑 체어와 테이블이 빠질 수 없다. 캠핑장에서 테이블과 의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부피도 클 수 있기에 최대한 가볍고 편리한 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추천한다.

우선 테이블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무게와 폴딩 사이즈를 고려해야 한다. 크기와 무게만 아니라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매 끼니를 야외에서 해결해야 하는 캠핑은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법이다. 휴대용 테이블을 설치하면 조리대와 식탁, 커피테이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인간다운’ 캠핑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에는 휴대가 간편하도록 아이스박스나 화로대와 일체화된 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바늘 가는 데 실이 따라가듯, 테이블과 함께 꼭 고려해야 할 제품이 바로 캠핑 체어이다. 시중에는 저렴한 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면 무게를 지탱하는 재원이 좋지 않아 금방 망가질 수도 있다. 물론 저렴하다고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A/S가 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의자는 은근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용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폴딩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캠핑 테이블 선택 가이드

캠핑 테이블도 다른 캠핑용품처럼 종류가 다양하다. 재질, 폴딩, 기능에 따라 선호 디자인에 따라 체어와 조합하여 고르면 된다.

- 테이블 종류 : 우드 테이블, 폴딩 테이블, 롤테이블, 키친 테이블, 화로 테이블

캠핑 체어 선택 가이드

다양한 종류의 체어로, 선택이 종종 어려울 수 있는 아이템이 캠핑의자이다. 부피를 줄이려면 경량형으로 무게와 부피를 체크해야 한다!

- 체어 종류 : 릴렉스 체어, 폴딩 체어, 로우 체어, 벤치 체어, 우드 체어

랜턴

캠핑은 저녁 시간의 감성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녁 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 중 하나이다. 은은한 불을 밝힐 수 있는 랜턴은 분위기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캠핑 아이템이다. 랜턴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밝기인데, 캠핑 조명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캠핑 시 사용하는 조명은 크게 가스랜턴, LED 랜턴, 작업등으로 나뉜다. 가스랜턴은 분위기를 살리는게 큰 역할을 하고, 전기 없이 오랫동안 불을 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맨틀 관리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캠핑장에서는 거의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LED 랜턴이나 작업등으로도 충분히 조명 사용이 가능하다.

캠핑의 낭만은 랜턴에서 나온다! 낭만적인 소품이 되어줄 랜션으로 개성을 연출하고 해가 졌을 때 더욱 아름답고 감성적인 모습을 연출 할 수 있는 랜턴을 빼먹지 말자.

취사도구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5성급 호텔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은 요리 시간이다. 자연 속에서 먹는 요리도 근사하게, 웬만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을 순간들을 만끽하게 해줄 취사도구를 살펴보자.

취사도구는 버너, 포트, 코펠, 냄비, 머그잔, 숟가락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버너와 코펠이다. 일반 버너보다 캠핑 버너 및 코펠은 부피를 확실히 덜 차지하며, 수저 세트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나 코펠은 요리를 하는 것인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코펠은 연질, 경질, 스테일릿, 세라믹으로 나뉜다. 보통 연질이 가장 저렴하고 세라믹이 가장 비싸다. 각자가 가진 예산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길 권장하며, 적당한 가격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가장 추천한다.

식재료와 음료를 차갑게 유지해주는 아이스박스도 캠핑 필수 아이템이다. 아이스박스는 여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 식재료나 음식이 얼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일등공신이다. 캠핑에 필요한 다른 짐이 워낙 많고 대개 하





루나 이들 분량의 식재료만 준비하게 되므로, 용량보다는 휴대성과 무게를 고려하여 제품은 선택하는 것도 아이스박스 선택의 꿀팁이다.

캠핑의 모든 것 3. 캠핑 주의사항

지금까지 캠핑과 캠핑용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캠핑은 분명 좋은 레저 활동이다. 그러나 호텔이나 펜션처럼 물리적으로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주거에서 잠을 자지는 않는다. 또한, 주로 캠핑을 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경우가 많아 캠핑장을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기상 정보 확인하기

출발 전, 그리고 캠핑 중에도 자주 확인해야 한다. 캠핑은 주로 깊은 산속, 강가, 바닷가 등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폭우나 바람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캠핑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과도한 음주 하지 않기

캠핑장이라고 해도 자연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어 도시보다는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음주를 과도하게 할 경우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음주 후 해안이나 계곡에서 실족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텐트는 되도록 평지에 설치하기

캠핑 시 잠을 잘 때 만약 바닥이 평평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수면을 취하는 중에는 통증이 나타나더

라도 자각하지 못해 장시간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계속 이렇게 자면 바닥과 바로 닿는 허리나 목 등에 무리가 가해져 통증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캠핑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르고 평평한 바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약 챙기기

어쩌다 넘어졌거나, 나무에 긁히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하는 등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을 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비상약품이나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약 등을 챙기자.

진드기 감염병 조심하기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을 뿐인데, 야외활동 이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 진드기 감염병은 치료 백신이 없어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캠핑할 때 풀밭에 벌러덩 눕는다거나 옷을 벗어두게 되면 진드기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니 꼭 돛자리나 텐트 위에 앉거나 눕도록 하자. 야외활동을 한 후에는 온몸을 구석구석 닦고, 입고 있었던 옷을 세탁해줘야 한다. 모든 진드기가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나 깨나 불조심. 캠핑장 화재 조심하기

캠핑장은 화재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야외인 데다가 캠핑 도구들이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화

재 예방을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조리나 흡연 시 남은 불씨까지 제대로 꺼진 건지 반드시 확인하고, 버너와 화롯대를 이용할 때는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두는 것도 좋다. 잠자리에 들 때는 텐트 안에서 가스랜턴보다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랜턴을 사용하는 것도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 캠핑장에서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흐르는 물에 10~15분 동안 열기를 식히고 화상 연고를 발라 줘야 한다. 화상이 심할 경우에는 바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하기

캠핑장에서 맛있는 캠핑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면 무척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한 야외에서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발병 확률이 높다는 사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음식물을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아이스박스나 쿨러를 이용하여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또한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도구를 깨끗하게 세척하자.

‘위급상황 대처법’ 사전에 숙지하고 떠나기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급상황은 캠핑 시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대비하여 응급처치법을 몇 가지 알아둔다면 현장에서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캠핑하면서 조리하거나 장비를 설치할 때 뚝족한 도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날카로운 것에 베거나 넘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을 때 이물질들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줘야 한다. 거즈를 대고 지혈을 하는데, 만약 지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다른 천을 덧대어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캠핑은 주로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식물이나 벌레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때 신기하다고 만지거나 먹으면 독성식물에 노출되어 가려움, 발진,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비눗물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벌레에 물릴 경우 깨끗이 씻어내고 관련 의약품을 바르는 것도 좋다.



즐거운 캠핑을 위해 응급처치법도 미리 알아두고 간단한 의약품을 챙겨가면 안전하고 든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며 지친 마음을 힐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캠핑! 하지만 부푼 기대감을 안고 떠나게 된 캠핑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는다면 힐링보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며 각자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미리 정한 뒤에 캠핑 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떠나는 것이 어떨까.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 국민이 초점을 두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캠핑장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거리 두기 실천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힐링 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출처

-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36771&memberNo=43168926
- blog.samsungfire.com/3842